



조선대학교병원뉴스

CHOSUN UNIVERSITY HOSPITAL NEWS

· 발행인 : 문경래 · 편집인 : 임동훈 · 기획편집 : 조선대학교병원 홍보팀 · 홈페이지 : <http://hosp.chosun.ac.kr> · 대표전화 : (062) 220-3114 · 홍보팀 : (062) 220-3288 / FAX 226-5882 501-717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 통권 제106호 2015년 1월 2일 금요일

신년사

지난 한 해 동안 조선대학교병원에 보내주신 성원에 전 교직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 '갑오년(甲午年) 청마의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2015년 '을미년(乙未年) 청양의 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양은 행운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운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조선대병원은 지난 1년간 '환자가 안전한 병원', '실력을 갖춘 신뢰받는 병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부자간 생체 간이식 및 4세 소아 간이식 성공,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 5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 3년 연속 1등급, 고관절 치환술, 위암·간암 수술 분야 1등급, 유방암(2년 연속)·대장암(3년 연속)·폐암 등 '암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 등 진료에 있어 우수성을 인정받는 한 해였습니다.

조선대병원은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가기 위해 외래진료센터 증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제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더 안락한 환경에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전 교직원이 한 마음이 되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새해 우리 병원은 환자와 한몸이 됨으로써 질병이 완치되어 모든 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우리 병원 교직원 일동은 새해에도 변함없이 노력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병원을 넘어 의료분야의 선도적인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선대병원을 위해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신 지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5년 을미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1월 2일

병원장 문 경 래 배상



조선대병원 ‘의료관광 우수병원’으로 선정

조선대병원이 법무부가 지정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조선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29개 대형 의료기관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하고 외국인인을 위한 전자정부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는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는 물론 관광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대병원은 전자비자를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어 외국인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해 비자를 받는 번거로움을 덜어 편리함을 제공하게 된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를 희망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무등록 업체와 브로커들의 무분별한 알선 행위가 성행하는 걸 차단하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제도를 운용해왔다.

추가 지정된 의료기관은 조선대병원을 비롯해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사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포함 29개 병원이 선정됐다.

선정기준은 ▲최근 1년간 유치인원 대비 불법체류자 발생 건수 ▲유치 실적 ▲납세실적과 사업계획서 등을 점수로 평가해 1년 단위로 우수 유치기관을 법무부가 선정하게 된다.

문경래 병원장은 “환자중심의 자연친화적 글로벌 병원에 걸맞은 최선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선대병원 보건복지부 선정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조선대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재차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고난도 의료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전문치료기관의 역할을 재차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세종시 종합청사 내 5층 대회의실에서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지정서 수여식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된 조선대병원을 비롯해 전국 43개 병원에 지정서를 교부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서울권을 비롯한 전국 총 10개 권역별로 병원 시설, 장비, 인력, 환자구성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난이도가 높은 중증 질환 진료를 담당할 병원으로 3년마다 지정하여 발표한다.

상급종합병원은 국내 의료체계 중 최상위 의료기관으로 암과 같은 고난도 중증질환 진료를 담당할 수 있어 병원으로서는 최상위의 인증 절차이며,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지정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조선대병원은 최근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환자분포를 보여 주고 있는 등 수도권 대형병원에 결코 뒤지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경래 병원장은 “이번 강화된 상급종합병원의 재차 지정은 수도권 병원과 손색이 없는 의료장비, 그리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 시켜준 우리 교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한다.”며 “향후, 각 전문진료센터 등을 강화해 이 지역 중증질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대학병원이 될 수 있도록 전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대병원, “건강한 폐경, 행복한 삶” 건강강좌 성료



산부인과 김수아 교수

조선대병원은 지난해 11월 19일 신관 2층 하중현홀에서 ‘폐경여성의 달’을 맞아 건강강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의에서 산부인과 김수아 교수는 ‘건강한 폐경, 행복한 삶’을 주제로 폐경의 증상과 원인,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폐경 후 증상에 따라 개별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운동, 부족한 영양분 섭취를 위한 웰빙 식단 등 건강한 폐경을 위해 다양한 대처방법에 참석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날 강좌는 ▶ 폐경기란 ▶ 갱년기란 ▶ 폐경이 되면 등에 대한 구체적 증세와 ‘호르몬 치료’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들과 이에 따른 대처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김수아 교수는 “여성은 폐경 이후의 삶이 제2의 인생이라 할 수 있어 폐경기의 당당한 극복이 필요하다.”라며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인한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어 제대로 된 음식 및 건강관리 역시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조선대병원 3년 연속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 조선대병원 신생아실

조선대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발표한 2014년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서 우수한 처방률을 보여 3년 연속 1등급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심평원은 전국 7550개 기관을 대상(2014. 1~6월)으로 15세 미만 유소아 급성 중이염 환자에 대해 ▶ 항생제 처방률 ▶ 항생제 투약일수율 ▶ 성분계열별 항생제 처방 비율 ▶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률 ▶ 중이염 상병비중 5개 평가지표에 대해 심의를 거쳐 항생제 처방률을 평가하였다.

항생제 사용은 불필요하게 사용할 경우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 세균이 증가할 수 있어 적절히 사용해 줄여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경래 병원장은 “항후에도 항생제 사용을 적절히 사용하고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겠다.”라며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선대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정 ‘암 적정성 평가’ 및 ‘진료량 평가’ 1등급 획득.



조선대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발표한 유방암, 대장암, 폐암 등 각종 ‘암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심평원이 발표한 진료적정성 평가 ▶ ‘유방암’ 99.54점 ▶ ‘대장암’ 99.25점 ▶ ‘폐암’ 98.22점으로 각종 암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아 조선대병원의 암 치료 수준이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

특히, 대장암은 3년 연속, 유방암은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으며, 폐암은 올해 처음 시행한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심평원은 2012년부터 「대장암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2014년 전국 266개 기관의 1만 7880건을 평가한 결과 조선대병원은 최고의 점수로 대장암 분야를 선도하는 대학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3년부터 조사하고 있는 「유방암 적정성 평가」의 경우 만 18세 이상 여성에게 유방암 수술을 시행한 185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4년 처음으로 평가결과를 공개한 「폐암 적정성 평가」는 110개 기관의 5010건을 대상

으로 시행되었다. 조선대병원은 암 적정성 평가 전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하며 수도권 병원과 비교해 차이가 없는 전국 최고 수준임을 증명했다.

조선대병원은 올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간접적으로 측정하여 대리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진료량 평가’에서도 고관절치환술, 위암수술, 간암수술 분야 1등급을 받기도 했다.

문경래 병원장은 “암 치료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선대병원 ‘2015년도 지역의약품 안전센터 계약대상자’ 재선정

조선대병원이 ‘2015년도 지역의약품안전센터 계약대상자’로 재차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조선대병원을 포함한 전국 27개 병원은 향후 3년간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 부작용 보고 등 약물 감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12년 설립 이후 매년 계약대상자를 선정했으나 2015부터는 3년 단위로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2017년까지 3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된 방침을 발표하였다.

조선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센터장 권용은 교수)는 의약품 유해사례 수집 체계 구축 및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목표로 의약품 유해사례 수집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문 병원장은 “지역 거점 중심의 병원 내·외 의약품 감시, 약물 부작용 수집 및 평가를 통해 지역민에게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센터의 재선정에 따라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경외과 김석원 교수, 대한류마티스학회 최우수‘임상화보상’수상

조선대병원 척추센터 신경외과 김석원 교수가 코엑스에서 열린 2014년 대한류마티스학회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임상화보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가 대한류마티스학회에서 발표한 ‘경추부 전종인대 골화증으로 발생한 삼킴 곤란’ 연구에서 신경외과 질환인 경추부 척추질환으로 내과적인 삼킴 곤란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수술 후 삼킴 곤란 증상의 호전 효과를 제시해 임상진료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교수는 “신경외과의 임상경험을 서로 다른 분야인 내과 의사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성형외과 양정열 교수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회장 선출

조선대병원 성형외과 양정열 교수가 작년 11월 7일 서울 K-호텔에서 열린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총회에서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제1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양 신임회장은 2014년 11월 7일부터 1년간 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인사말을 통해 “본 학회 모든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극대화하여 지속적인 두개안면학회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지난 1993년에 창립한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는 성형외과의 근간인 두개골 부위와 안면 부위의 선천성 기형과 재건에 대해 진료와 교육 그리고 연구를 위한 학술 단체이다.



이비인후과 최지윤 교수 국내수술 목적 ‘방한 외국인 환자’ 진료



조선대병원은 몽골에서 치료차 작년 11월 입국한 몽골국적 텔게르바야르(남, 39세) 환자에 이비인후과적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 환자는 어렸을 때 사고로 코 변형과 코 막힘 등으로 고통을 받았으나 낙후된 의료시설로 특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에 시달렸다.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미국안면성형전문의 시험에 합격해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최지윤 교수는 환자를 검사한 결과 비변형, 비중격만곡증, 만성 부비동염으로 진단하고 비성형, 비중격교정술, 부비동내시경수술을 시행하였다.

입원 기간 중 최 교수의 안내로 한국의 문화 체험과 병원 시설을 둘러본 환자는 “병원의 쾌적한 환경, 선진기술 및 시설, 친절한 직원에 대해 매우 흡족했다.”라고 말하고 “짧은 시간이나마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뜻깊은 경험이었다.”라고 치료 후 소감을 밝혔다.

조선대병원은 앞으로 몽골과의 국제협력 교류를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국내 의료관광 환자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축구협회 ‘2014 광주 축구인의 밤’ 행사 정형외과 이준영 교수 ‘공로패’ 수상



지난해 12월 22일(월) 광주광역시 축구협회는 프라도 호텔에서 ‘2014 축구인의 밤’ 행사를 갖고 성공적이었던 2014 시즌을 자축했다.

광주 FC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는 정형외과 이준영 교수에게는 이번에 승격을 이뤄낸 광주 FC 선수단의 부상 방지 및

체력관리 등의 공로를 인정하여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 교수는 족부 족관절 질환이 전문이며 현재 대한축구협회 의무분과 위원, 광주축구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1년 20세 이하(U-20) 콜롬비아 월드컵, 2012년 킹스컵 올림픽 축구대표팀 주치의, ‘2014 아시아 축구연맹(AFC) U-16 국가대표 축구팀’ 팀 주치의로 활약한 바 있다.

조선대병원 간이식수술팀 4세 소아 간이식 수술에 성공, 호남지역 장기이식 수준을 높인다.



▷ 수술 5일 경과 후 영아원 보육엄마에 의해 환아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무균실 내의 모습.

조선대병원 간이식 수술팀(외과 최남규 교수 등)은 13일 선천성 담도폐쇄증으로 간이식 이외에는 희망이 없었던 이 모군(4세)에게 소아 뇌사자 간을 이식하는데 성공했다.

2011년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태어나서 영아원에서 자란 이 모군은 선천성 담도폐쇄 진단을 받고 간과 소장을 연결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간 기능 수치가 상승하고, 비장이 비대해지는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간 내 담도에도 문제가 발생,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중한 상태였다. 그렇게 1년여를 힘겹게 버티며 간신히 생명을 유지해야 했던 이 모군에게 기적처럼 소아 뇌사자가 간을 기증했다.

4세 소아 환자 간의 뇌사 이식수술은 호남은 물론 충청권에서도 전례가 없었다. 조선대병원 간이식 수술팀의 고난도 간이식 수술을 통해 이 모군은 새로운 생명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최 교수는 “자신이 받은 많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도록 건강하게 성장해 주길 바란다.”라며 “이 군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어려운 결심을 해 준 기증자 부모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조선대병원은 1991년 신장이식을 시작한 이후 1999년 광주·전남지역 최초 간이식 수술에 성공하며 호남지역 장기이식에 앞장서고 있다.

2012년 충청·호남지역 최초로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에 성공했으며, 2013년 6월 혈액형 불일치 간장이식 수술, 2013년 9월 간장·신장 동시 이식수술에 잇따라 성공하며 호남지역 장기이식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최 교수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진단을 거쳐 수술을 받기까지 복잡한 절차와 대기 시간 문제로 곤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지적한 뒤 “지역병원에서도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선대병원 자위소방대, ‘입원병실 화재’를 가상의 소방훈련 실시



▷ 자위소방부대장(총무부장 김정만)이 자체 소방훈련 종료 후 참여한 자위소방대원들에게 총평을 하는 모습.

조선대병원 자위소방대는 지난해 11월 14일 자체 소방능력을 향상하고 화재 발생 시 대응체계 및 효과적인 행동요령 숙지를 위해 입원환자 병실을 대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조선대병원 본관 내과병동 6226호실 화재 발생을 가정한 훈련에서 입원환자를 긴급히 대피시키는 비상탈출 능력과 화재를 처음 인지한 병동근무자는 주변 휴대용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고 원내방송 등을 통한 자위소방대원의 즉각적인 출동이 이루어졌다.

출동한 자위소방대원은 맡은 역할에 따라 환자 및 내원객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하고, 벽면 소화전의 소방호스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훈련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훈련은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고 등 최근에 발생한 대형화재 발생 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병원건물의 취약점에 중점을 둔 훈련으로 철저한 대비를 통한 지속적인 안전 관리를 할 예정이다.



‘조선대학교병원의료봉사단’ 출정식 행사 성료



조선대병원은 지난해 12월 16일 병원 의성관 5층 김동국홀에서 의료봉사단 출정식과 함께 나눔의 결의를 다졌다.

고문으로 참여하는 ‘젊음의 멘토’박경철 원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대학병원에서 나눔을 위한 대규모 의료봉사단이 조직된 것에 찬사를 보낸다.”라며 “이번 출정식에는 함께 하진 못하지만 언제든지

의료봉사 활동에 함께 참여하겠다.”라고 말해 봉사단원과 직접 봉사에 함께 참여할 뜻을 밝혔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대우, 간호사 신복주가 봉사단원을 대표한 선서를 통해 “향후 봉사단은 생명을 가장 고귀한 최고의 으뜸으로 보고, 지역사회와 복지와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환자중심의 인술로 누구보다 솔선수범하여 봉사활동을 생활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캄보디아 광주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희망나무(대표 정승욱)와 해외 의료봉사 등을 함께하는 MOU를 체결하여 조선대병원의료봉사단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계획을 준비 중이다.



조선대병원 대규모 ‘의료봉사단’ 발대식



조선대병원은 지난해 11월 25일(화) 병원 신관 2층 하중현홀에서 ‘조선대병원의료봉사단’ 발대식을 열었다. 의료봉사단은 문 병원장을 단장으로 고문(19명)과 조선대병원, 조선대치대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조선대학교 인사 및 사회 각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한다.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대규모로 구성된 조선대병원의료봉사단은 장애인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지원과, 캄보디아 의료봉사, 몽골 및 아프리카 말리 등 의료 취약지역 봉사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문경래 단장은 “체계적인 의료봉사를 위해 조직적인 의료봉사단을 발족하게 되었다.”라며 “봉사단원 모두의 마음과 손길이 전달되어 의료 소외 계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선대학교병원의료봉사단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을 위한 의료봉사



‘조선대병원의료봉사단(단장 문경래 병원장)’은 17일,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은 내과, 재활의학과, 안과, 치과 4개 진료과 의료진과 지원인력을 포함하여 17명으로 구성되었다. 추운 날씨에도 130여

명이 넘는 지역 장애인에게 건강검진, 진료 및 필요약품 제공 등을 통해 따뜻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봉사활동 현장에는 문경래 병원장이 방문하여 장애인의 어려움을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지윤 교수는 “진료를 마친 많은 장애인분들이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라며 “국내는 물론 국외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먼저 찾아가는 의료봉사단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다짐을 밝혔다.



조선대병원 「여성 암 환우를 위한 메이크업」 행사

조선대병원과 아모레퍼시픽이 지난해 11월 14일 조선대병원 2층 하중현홀에서 여성 암 환우를 위한 ‘아름다운 손길, 희망을 메이크업하다.’라는 주제로 여성 암 환우를 위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암 치료 과정에서 오는 외모 변화로 고통 받는 여성 암환우를 대상으로 ‘메이크업’과 ‘피부 관리방법’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 항암치료로 인한 외모 변화와 대처방법 ▶ 두피 변화와 대처방법 ▶ 깨끗한 세안을 위한 클렌징 3단계 ▶ 자신감을 더하는 메이크업 4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전문가와 환우 간 1대1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암 환우는 ‘기나긴 암과의 싸움으로 지친 본인의 모습을 가꾸기 위해 행사에 참석했다.’라며 ‘강사의 설명과 전문가를 통한 메이크업을 배우며 이제는 치료 전보다 더 예뻐지고 밝아진 것 같아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소아환자에게 선물 증정 「MERRY CHRISTMAS」



조선대학교병원은 지난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하여 7층 소아청소년과 병동에 있는 소아환자들에게 의료진이 준비한 선물을 증정하였다.

크리스마스를 병원에서 보낼 소아환자 50여 명에게 노영일 교수(소아청소년과 과장)가 직접 목도리, 크레파스, 다이어리를 선물하고 빠른 쾌유를 빌었다. 선물을 받은 아이들 또한 기쁜 얼굴로 의료진을 맞이하여 밝은 분위기 속에서 화진이 이루어졌다.

조선대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선사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작지만 행복을 선물하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 잠시나마 고통을 잊고 밝은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병원 전 교직원이 노력하고 있다.

‘뮤직 앙상블 음악콘서트」 「동행」



▶ 월드 뮤직 앙상블 ‘필리아’팀이 5일, 2층 하중현홀에서 서양악기와 국악기의 앙상블 공연을 하고 있다

환자의 치유를 돕기 위해 다양한 환자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조선대병원은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음악콘서트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서양악기와 국악기의 조화로운 앙상블을 창조하는 ‘필리아’(대표 금용웅)팀은 이번 공연을 위해 잘 알려진 곡을 재해석하였다. 드라마 OST, 영화 음악, 왈츠 등 다양한 곡을 통해 색다른 느낌을 전달하여 환자와 보호자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문경래 병원장은 “외출 활동이 어려운 환자와 보호자들이 문화생활을 통해 삶의 활력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환자들의 건강은 물론 마음마저 따뜻하게 치유될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유나이티드문화재단 「찾아가는 유나이티드 음악회」



조선대병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입원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찾아가는 유나이티드 음악회’를 신관 2층 하중현홀에서 개최하였다.

서울에서 초청된 이번 공연은 소프라노 하연주, 테너 김주완 등 성악가들과 바이올리니스트 이선향, 첼리스트 전경미, 피아니스트 윤수미, 플루티스트 김병석 등 실력과 음악가들로 구성되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찾아가는 유나이티드 음악회’를 주관하는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은 클래식 음악을 통해 환자들의 쾌유를 기원하고 누구나 친근하게 클래식 음악을 접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찾아가는 유나이티드 음악회’를 기획하여 전국을 순회하며 공연한다.



조선대병원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교’와 협정식 체결

조선대병원과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MUST)이 지난해 12월 15일 조선대병원 10층 회의실에서 의료서비스 협력과 관련 협정식을 하였다.

조선대병원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헬스센터를 지원하고 몽골과학기술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요청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문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교 1500여 명 교직원의 건강을 조선대병원이 책임진다는데 커다란 의미를 두고 있다.”라며 “최선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병원을 지향하는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몽골 제1병원, 몽골 송도병원, 몽골 의과대학과 MOU를 체결해 국내 선진 의료기술 전수를 위한 연수 지원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뮤지컬배우 손준호와 함께 「토요타 자선병원 콘서트」



조선대병원은 연말 환우 및 보호자를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병원 신관 1층에서 토요타 자선병원 콘서트를 마련하여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였다.

조선대병원과 한국토요타가 함께 마련한 이번 공연에는 뮤지컬 배우 손준호와 어린이합창단 ‘예쁜아이들’이 함께 조선대병원을 방문하여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위안과 사랑을 전달하였다. 이날 공연에는 300여 명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으며, 뜨거운 성원으로 성황리에 콘서트를 마쳤다.

조선대병원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병원 내에서도 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콘서트, 전시회, 영화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환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병원
소식



CHOSUN UNIVERSITY HOSPITAL



교수 동정(2014년 11월~12월)

1. 내분비내과 김상용 11/21-25 세계당뇨병학회 참석 및 포스터 발표, 싱가포르
2. 내분비내과 소중해 11/21-24 IDF-WPR 2014 참석 및 포스터발표, 싱가포르
3. 소화기내과 오명근 11/20-25 2014 아시아소화기학회 포스터 발표, 인도네시아 발리
4. 류마티스내과 김윤성 11/15-20 미국 류마티스학회(2014) 논문발표, 미국
5. 외과 장정환 11/21-22 Boston Scientific Cordially Invites You To Attend Peripheral Intervention Simulator Wrokshop 참석, 중국 상하이
6. 정형외과 문영래 11/24-27 8th Academic Congress of the Asian Shoulder Association 연제발표, 필리핀
7. 정형외과 박상하 11/24-27 8th Academic Congress of the Asian Shoulder Association 연제발표, 필리핀
8. 정형외과 박상하 11/1-4 Dx Cadaver Workshop in Hawaii 참석, 하와이
9. 신경외과 이승명 11/10-5 8th Asia Pasific Cervical Spine Society Meeting 참석, 터키
10. 신경외과 주창일 11/10-15 8th Asia Pasific Cervical Spine Society Meeting 논문발표, 터키
11. 이비인후과 도남용 11/28-12/1 The 9th East Asian Conference on Phono Surgery 논문발표, 대만
12. 이비인후과 최지윤 11/6-11/10 Facial Cosmocon 2014 논문발표, 인도
13. 이비인후과 박준희 11/28-12/1 The 9th East Asian Conference on Phono Surgery 논문발표, 대만
14. 진단검사의학과 강성호 12/5-11 미국혈액학회(American Society of Hematology)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미국 샌프란시스코

교직원 동정(2014년 11월~12월)

11월 환영합니다(입사)

1. 특수부서팀 / 2중환자실 - 최은주
2. 치료방사선팀 - 고혜진

11월 축하합니다(임명)

1. 진단방사선팀 / 교육 파트장 최정길
2. 특수촬영실 / 파트장 정해중

12월 환영합니다(입사)

1. 원 무 팀 - 김대중
2. 특수부서팀 / 2중환자실 - 박슬기
3. 병동간호1팀 / 신생아중환자실 - 배슬기
4. 병동간호1팀 / 31병동 - 양예은

11월 수고하셨습니다(퇴사)

1. 약 무 팀 - 김현아
2. 성형외과 - 서빛나
3. 병동간호1팀/신생아중환자실 - 황소윤
4. 특수부서팀/1중환자실 - 이정순
5. 수술간호팀/수술실 - 장홍석
6. 심혈관센터 - 최 현
7. 외래간호팀/외래진료(직업환경의학과) - 홍보람

12월 수고하셨습니다(퇴사)

1. 호흡기내과 - 김형호
2. 병동간호1팀/32병동 - 박수진
3. 특수부서팀/응급실 - 이예슬



▷ 중앙 문경래 병원장 우측순으로 파트장 정해중, 최정길, 좌측순으로 의학물리사 고혜진, 간호사 최은주.



▷ 중앙 문경래 병원장, 왼쪽부터 간호사 양예은, 배슬기, 박슬기, 행정직원 김대중



조선대병원 기부금 약정현황(2014.7.1~ 2014.12.31.)

(단위: 원)

번호	소 속	성 명	기부금액	누 계	비 고
1	재 무 팀	곽 정	500,000	4,682,010	
2	정읍아산병원 병리과장	송혜숙	5,000,000	5,000,000	
3	재 무 팀	임길락	3,600,000	10,091,600	
4	병원 후원인	조성희	20,000,000	30,000,000	
5	구 매 팀	허민자	593,370	8,225,800	
6	목포기독교병원장	위희수	10,000,000	10,000,000	

스마일 직원 및 부서 소개

조선대병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스마일 직원 및 부서 시상식을 열었다. 스마일 직원 · 부서는 환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항상 밝은 미소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격월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스마일 교직원에는 신경과 추인성 교수, 간호2팀 임희진, 의료정보팀 한윤희, 스마일 부서에는 시설관리팀이 선정되어 표창장과 금일봉을 수여했다.

스마일직원



임희진

스마일직원



추인성

스마일직원



한윤희

스마일부서



시설관리팀

최소 침습적 심장 수술

MICS :
Minimally Invasive Cardiac Surgery



류 상 완 교수

심장질환으로 인해 수술을 권유 받는 대부분의 환자분이나 보호자 분들은 심장수술이라는 말 자체만으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수술시기를 미루다 보면 결국 심장질환의 악화로 인해 막상 늦게 수술을 하게 됨으로써 수술의 위험도가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심장수술은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가슴의 한가운데에 피부상처를 내고 흉골이라고 하는 가슴 정중앙의 뼈를 절제하는 정중흉골절개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정중흉골절개를 통해서도 수술하고자 하는 심장을 가장 넓게 그리고 모든 부위를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빠르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골절을 유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술 후 흉골이 완전히 접합 될 때까지 약 2개월간의 심한 운동이나 작업을 할 수가 없고 때에 따라서는 흉골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종격동염이라고 하는 위중한 합병증을 야기 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러한 합병증을 방지하고 환자분들이 조기에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림 2에서와 같이 우측 유두 밑이나 겨드랑이 부위에 10cm미만의 피부절개를 하고 갈비뼈 사이를 통해 심장에 접근하여 수술을 시행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기구나 장비에 따라 여러 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나 이러한 수술 방법을 총칭하여 최소 침습적 심장수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림 1. 일반적인 정중흉골절개술 후 수술상처



그림 2. 최소침습적 심장 수술 후 수술 상처

그러나, 모든 심장질환에서 최소 침습적 심장 수술을 시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측 개흉술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심장 부위에 있는 여러 심장 질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최소침습적 심장수술은 여러 기구나 장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수술 경험이 많고 동시에 최소침습적 수술방법에 익숙한 수술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수술의 기본 목표는 항상 가장 안전하고 재발이 없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환자분이나 보호자 분이 원하신다고 하더라도 최소침습적 수술 방법이 적합하지 않는 분에게 시행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최소 침습적 심장수술이 가능한 질환이나 적합한 환자분에게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수술 후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심장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됩니다.

최소 침습적 심장 수술이 가능한 심장질환

- 승모판막 및 삼첨판막 질환의 수술
- 심방 세동시 메이즈 수술
- 심방중격결손증과 같은 일부 선천성 심장질환
- 좌심방 증양
- 기타 일부 심막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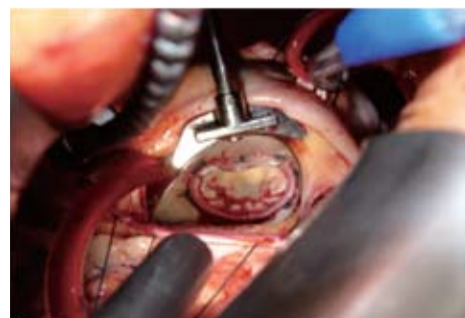


그림 3. 흉강경을 통해 본 최소침습적 승모판막성형술 시행 후 사진